



수도권일보 4면

##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시작

### 서울 강북구의회, 활동계획안 통과 부적정 처리사례 조사... 적극 처리

서울시 강북구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'서울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(안)'를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.

2010년도에 구성된 후 준비과정을 거친 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는 강

북구청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편의적 해석, 처리지연 등 소극적 업무처리로 구민 불편,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해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민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됐다.

특히,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

회는 위원장에 박문수 의원, 부위원장에 김도연 의원, 김동식 의원, 이백균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, 사무보좌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 7명이 참여하게 된다.

활동기간은 오는 3월2일부터 9월1일까지 6개월간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민원을 제외한 각 종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하고,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방문, 전문가 자문,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.

/전승원기자

wsj@sudokwon.com

### 서울일보(인터넷 뉴스)

#### 강북구의회,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시작

서울일보 11-01-31 16:11 | 최종업데이트 11-01-31 16:11

프린트 이메일보내기 목록보

태그



강북구의회(의장 유군성)는 2011년 1월 28일 본회의에서 '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(안)'를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. 2010년도에 구성된 후 준비과정을 거친 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는 강북구청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편의적 해석, 처리지연 등 소극적 업무처리로 구민 불편,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.

특히,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문수 의원, 부위원장에 김도연 의원, 김동식 의원, 이백균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, 사무보좌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 7명이 참여하게 된다. 활동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간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민원을 제외한 각 종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하고,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방문, 전문가 자문,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.

박남수 기자